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0 주차 (롬 3:19-24)
(2017년 3월 12일 - 2017년 3월 18일)
(제5권 10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0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3월 12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주일)

오늘의 본문 (롬3:19~20)

- ¹⁹ οἴδαμεν δὲ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ὅσα ὁ νόμος λέγει τοῖς ἐν τῷ νόμῳ λαλοῦν,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ἵνα πᾶν στόμα φραγῆ (모든 입이 막히고)
 καὶ ὑπόδικος γένηται πᾶς ὁ κόσμος τῷ θεῷ.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법적 권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 ²⁰ διό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ω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ἐνώπιον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διὰ γὰρ νόμου ἐπίγνωσις ἁμαρτίας.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을 읽다보면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만큼 반전이 많다는 말이다. 어떤 때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훌륭한 성경 인물들도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는 내용을 접하면 공연히 화가 나기도 한다.

로마서 19 절과 20 절이 그렇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역설해 왔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 기준을 행함으로 각자 자기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위선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이 대목에서 이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정말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도덕적 준거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다. 그 명령 앞에서 ‘왜’ 또는 ‘어떻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이방인들의 양심도 율법과 똑같다.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 셈이다. 율법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갇히는 신세가 된다.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죄 아래 갇히고, 이방인들은 내면의 양심에 의해 죄 아래 갇힌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필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이리라.

그 동안 인간들의 죄에 대해 집요한 논증을 해 왔고,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강조하던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반전을 꾀하고 있다. ‘오이다멘 데’ (οἴδαμεν δὲ)!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의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은 모든 독자들을 다 포함한다. 바울이나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또한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로 인간의 법적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보된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율법(이방인에게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인간의 법적 정당성은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보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그 행위를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타인들보다 깨끗하고 의롭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향해 쉽게 손가락질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분개한다. 그런데 의외인 건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사실, 기독교인이란 단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독교인이란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라는 깊은 자기 성찰을 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쉽게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이틀 전 감람산에 올라가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다. 종말의 징조,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 하신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세운다. 그리고 양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신다. 양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고, 염소는 생각지도 않은 심판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엄청난 상을 주시냐고 묻는다. 자신들은 천국을 상으로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염소는 예수님께 항의한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말이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십일조는 물론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의를 힘입어 면목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마치 숙제하듯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아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종교인이라면 열심히 노력하는 스스로에 대해 대견해 하거나 주위의 칭찬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때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극찬까지 듣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몰차게 말한다. 인간의 의를 평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미 평가해 놓은 것을 추인하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법적 정당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이지 인간들 스스로 평가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같은 바울의 주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온 그리스도인일수록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한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자격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 행여나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혹시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까? 그 결과 당신은 타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당신은 정말 다른 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3:19~20)

¹⁹ οἶδαμεν δὲ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ὅσα ὁ νόμος λέγει τοῖς ἐν τῷ νόμῳ λαλεῖ,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ἵνα πᾶν στόμα φραγῆ (모든 입이 막히고)

καὶ ὑπόδικος γένηται πᾶς ὁ κόσμος τῷ θεῷ.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법적 권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²⁰ διό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ω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ἐνώπιον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διὰ γὰρ νόμου ἐπίγνωσις ἁμαρτίας.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율법은 요즈음 말로 넘사벽은 아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율법은 단지 행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의든 아니든 율법을 범했을 경우, 다시 말해 율법을 어겨서 의롭지 못한 상태에 빠지거나 정결함이 훼손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율법이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와는 상관없이 생리적으로 생기는 문제도 정결 의식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성인 여성들은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해진다. 요즈음은 이런 생리 현상을 부정이라 하지 않지만 모세 율법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가진 다른 경전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모세 율법은 성경의 첫 다섯 권을 일컫는 말로 구약 성경의 핵심 부분이다. 모세 율법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부정을 면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건 축하받을 일인데도 그로 인해 부정해진다니 산모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할 일이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레위기 12 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의식에 관한 내용이다.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³ 제 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⁴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⁵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 육일을 지나야 하리라 ⁶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⁷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찌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⁸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찌니 그가 정결하리라”(레 12:2-8).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그날부터 일주일간 부정해진다.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못할 뿐 아니라 상소의 출입도 금지된다. 게다가 아들이든 딸이든 각각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일년된 어린양을 취해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를 취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아이를 낳는 생리적 현상마저도 피 흘리는 부정한 행위이므로 그것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정결 의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는 율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율법은 우리 맘대로 취사선택에서 시대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켜내야 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율법은 불의와 부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내에서 정당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은 올바른 행위만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인간의 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실 복음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기한 사람처럼 생각될 정도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그 사회 공동체의 공공연한 가치를 훼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 바리새인보다 죄를 밥 먹듯 지으며 살아온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한 것은 그나마 낫다. 세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어땠는가? 그 여인이 미처 회개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잡아 온 유대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셨다. 이처럼 걸핏하면 유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드는 발언과 행동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할만도 했으리라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대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터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확실하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 여부로 인간들의 의를 판단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 율법의 기능은 아주 단순하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거울이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율법으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흠을 가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불필요해진 것인가? 더 이상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율법은 더더욱 굳건히 세워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 하나님의 자녀를 유지시켜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천국에 무임 승차하려는 속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가? 율법의 정신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좋은 도구이자 삶의 지침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흠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분이 계신다. 그게 진짜 감사한 일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완성됩니까?

누니 데 (Nunì δὲ (그러나 지금))!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3:21~22상)

²¹ Nunì δὲ (그러나 지금)

χωρὶς νόμου (율법에서 벗어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ερὶ ἀνόμιαν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율법과 예언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²²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생겨난] 하나님의 의가)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을 읽다보면 수많은 반전 이야기가 나온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이 성경의 묘미다. 성경 이야기 중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뭐니뭐니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순간에 다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차례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절망이었다. 그분이 죽은 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으로 찾아왔다. 미처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에 늦게나마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싣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신을 도둑맞은 건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모두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의 인생에 이만한 반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갯세마네 동산에서 무력하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제자들, 대제사장의 뜰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까지 대역전을 기대했던 끝내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밖에 없었던 비겁한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하며 절망했던 여러 마리아들, 빈 무덤 앞에서 허탈한 심정으로 허공만 쳐다보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반전이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고, 새 생명을 주었다. 또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안겨주었다.

“누니 데”(Nunì δὲ)!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첫 번째로 극적인 반전을 시도한다. 바울의 이 한 마디는 율법으로 인해 영락없이 죄인이 되어 절망하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 줄기 서광처럼 강렬하게 비친다. 그렇다!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준다.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진 율법을 실제로 살아내어 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만해도 이미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설령 인간적 기준으로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보장도 없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위선을 통해 눈가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결과 남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든다. 우리는 어떤가?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들을 타인이 몰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남모르게 얼마나 많이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져다 준다. 그 율법 앞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누니 데!) 대반전이 눈 앞에서 펼쳐진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을 인간의 자격을 따지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인생을 살다보면 가끔씩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다.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필자뿐만 아니라 동세대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갈수록 청년들의 취업 요건이 높아져 이제는 대졸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만 경쟁력이 있을 정도다. 대학 서열화는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 내에서도 성적으로 사람을 나눈다.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때는 공부만 잘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무조건 성적만 뛰어나면 좋은 학생이고,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나쁜 학생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학교 성적은 선악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요즘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취업이 안 되면 인생 낙오자로 간주된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고 각박해지고 있다.

성경을 갖고 있던 유대 사회 내에서도 이런 식의 온갖 차별이 행해졌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을 차별했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또 다시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 차별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특정인을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문둥병자들이나 12 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이유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불의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처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하고 불의한 자로 차별당하던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세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 율법 대신 사랑이라는 더 위대한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소외된 사람, 자격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안아주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차별과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율법 조문으로 서로를 차갑게 비판하는 곳이 아니다. 인간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경연장도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지 남들 앞에서 품평회를 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기댈 곳 없는 지친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어 주는 곳이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품고 안아주는 곳이다. 바울은 말한다. 누니 데 (Νυνὶ δέ)!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던 진노를 거두시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 얼마나 벅찬 순간인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바꾸는 이 순간, 가장 기뻐할 사람은 자신의 자격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던 사람일 것이다. 반대로 가장 화가 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왔노라 자신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를 평가하신다. 이 소식이 당신에게 복음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너무 불공평하고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가? 만약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속에서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당신은 분명 율법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일 게다.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들여다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은 당신을 포함해 어떤 누구에게나 늘 좋은 것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걸..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기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율법을 벗어나서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3:21~22상)

- ²¹ Nūn̄i δὲ (그러나 지금)
χωρὶς νόμου (율법에서 벗어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ερὶ ἀνθρώπων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율법과 예언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 ²²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생겨난] 하나님의 의가)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게 설명 가능할까?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차라리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으로 속죄를 선포하면 더 멋질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용서 받았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거대한 음성이 들렸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텐데 말이다. 이런 간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구원을 완성하셔도 될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아니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기로 작정하신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꼭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을 받는 방법으로 속죄를 완성하셔야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구원 받아야 할 피조물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구원의 방법까지 따지고 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참으로 어색한 방법, 인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었고 그 새로운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의를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말한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손자인 야곱의 대에 그들을 이집트로 옮기셨다. 그들이 맨 처음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는 왕족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 물론 요셉 덕분이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점점 하층민으로 전락해 갔고, 급기야는 노예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백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어찌 보면 공허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다는 말인가? 그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제대로 모른 채 이집트 땅에서 죽어갔다. 그들은 노예들의 집단 거주지처럼 보이는 고센 땅을 한 번도 벗어나본 적도 없는데다

가, 원래부터 이집트 땅의 노예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뻗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부여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운행하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버렸다.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읽어보라. 그리고 역사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예언서들을 읽어보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정말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행했던 기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라. 있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율법을 밥 먹듯 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한 자락을 드러내고 있다. ‘코리스 노모우’(χορις νόμου)!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인간의 의를 평가하는 걸 포기하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시나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부터 그것으로 인간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평가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줄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한 사건이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한 의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벗어나야 보인다. 율법을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율법은 인간들 눈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너무나 매력적인 도구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야 하는가?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일갈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11절을 읽어보자.

“¹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¹¹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갈 3:10-11).

사도 바울의 설명은 단호하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율법은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은 그냥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국어 시험으로 입학 여부를 정하겠다고 발표한다면 어떡하겠는가? 그것도 국어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점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합격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온 그 학생은 분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국어 시험에서 백지를 냈든, 열심히 문제를 풀어 좋은 성적을 냈든 상관없이 응시한 자체만으로 전부 합격으로 처리한다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는가? 당연히 공부 안 하고 매일 꼴찌만 하던 학생일 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꼴찌만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에 은근히 부아가 치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복음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임에 틀림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왜 율법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기로 하신 걸까요? 당신에게 그 사실이 은혜로 다가옵니까?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3:21~22상)

- ²¹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χωρὶς νόμου (율법에서 벗어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ερὶ ἀνέρωται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율법과 예언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 ²²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생겨난] 하나님의 의가)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의는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예언들에 의해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구약의 율법이든 예언이든 심지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역사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다. 하지만 바울은 단지 직접적인 예언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구약은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일종의 대하 드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구속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율법을 어겨도 그들은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은 모세 때나 오늘날 날에나 동일하다. 사회법상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벌금을 내야 할 때도 있고, 징역을 살아야 할 때도 있으며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들이 만든 사회법에까지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한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까지 일일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사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죄는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사회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범한 일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율법도 희생 제물을 요구하고 은혜도 희생 제물을 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짐승이나 새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났다는 말은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말에는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율법에 초점을 맞춰 얘기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에서 벗어났을 때(다시 말해 실패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나 율법을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율법에서처럼 짐승들의 피를 흘려 속죄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방식을 택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⁷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⁸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⁹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¹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7-10).

율법에 따라 지금까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말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한 종교 공동체였다. 따라서 그들의 삶 전체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먹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율법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행위가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비유고 진짜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거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자.

“¹¹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¹²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¹³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기록케 하거든 ¹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¹⁵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9:11-15).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희생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기록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 년이 넘도록 율법으로 훈련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율법 아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론 나무라시기까지 했다. 또한 역사를 통해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이 받을 대가도 생생하게 설명해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실수나 실패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행위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 외엔 다른 도리가 없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기를 바란다 (갈 5:1 참조).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의는 율법에 기록된 것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3:22하~24)

²²...οὐ γάρ ἐστιν διαστολή, (그것은 차별이 없다)

²³ πάντες γὰρ ἥμαρτον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καὶ ὑστεροῦντα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었다)

²⁴ δικαιοῦμενοι δωρεάν τῆ ἀποτοῦ χάριτι (그의 은혜로 대가없이 의롭게 되었다)

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차등상급론이란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도들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적게 노력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급이 적어진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에는 아마도 최고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이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 사람들은 상급도 변변찮을 거라고 말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¹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¹⁸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1-19).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육체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없었다면 우리는 우상을 따르거나 자기 자신이나 믿으며 살아갈 운명이었다.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만 살아가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자와 작은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른가?

차등 상급론은 차등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자격만 주어질 뿐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얼마나 차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구원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도 아무 차별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불이라 한다. 그러니까 불의, 즉 의롭지 못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하나님 측에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인간이 노력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지금 이 관계를 단절한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 또한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인간이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한 그 노력들은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면서 (또는 선택하시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적이 없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언약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신 적이 없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선택하실 때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를 인간 편에서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갈릴리 땅을 택하셨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는 경건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었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를 택하시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택하셨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에게서 피같은 세금을 거둬가던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다. 더군다나 그 중에 가장 영리하고 능력있던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왜 그랬을까?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나 조건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믿는 믿음조차 선물이라고 했을까? (엡 2:8 참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후 인간들에게 부여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부여되는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 온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차별이 없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보냈든, 평생을 화류계에서 보내다가 늑그막에 병원 침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눈에는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알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러니 속 불편한 감정일랑 일찌감치 내다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 봤자 자기 마음만 상할 뿐이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대가없이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3:22하~24)

²²...οὐ γὰρ ἔστιν διαστολή, (그것은 차별이 없다)

²³ πάντες γὰρ ἥμαρτον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καὶ ὑστεροῦντα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었다)

²⁴ δικαιοῦμενοι δωρεὰν τῆ ἀποτοῦ χάριτι (그의 은혜로 대가없이 의롭게 되었다)

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구절이 우리 말로는 죄가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죄라는 실체가 있고 인간이 그것을 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문에서 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인간이 행한 행위, 인간의 상태 그 자체가 전부 죄라는 말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죄고 세리처럼 돈을 사랑하며 살아도 죄다.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미달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의로움을 평가한다. 그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죄라고 해봤자 자잘하고 경미한 정도고 더군다나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 공로에 비하면 새발의 피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은 충분히 의롭고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항변하고 싶어질 것이다. 충분히 수궁이 간다.

이처럼 인간들은 죄와 의를 서로 저울질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을 저울에 올려 놓고 선보다 악을 많이 쌓으면 악쪽으로 저울이 기울고 반대로 선을 더 많이 쌓으면 저울이 선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수백 억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보다 많은 액수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현저한 경우 면죄부를 받거나 감옥행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로 나눌 뿐 누구나 동일하게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일 뿐이다.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인간의 죄는 각자 열심히 선을 쌓고 인류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많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교 신자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는 미국 사회나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의 부족이나 그 사회 나름대로 눈물겨운 헌신이 있고 고귀한 희생이 있다. 각종 봉사 활동도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종교 단체는 물론이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 내면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다. ‘은혜’라는 말과 ‘대가 없이’라는 말은 서로 동의어처럼 들린다. 대가없이라는 말은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측에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말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고, 헌금은 물론이고 수많은 봉사 활동도 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이나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측의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인간의 노력이 무익해서가 아니다. 인간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행하는 선은 그 자체로 유익하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차별적인 노력을 근거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대신 하나님은 별도의 구원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아들 하나님이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셨다. 그렇기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인간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하셨으니 그 관계를 회복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가진 딜레마다. 그런데 희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이 직접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어떠한 대가도 치를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두셨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만드신 그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교황에게도, 유명한 목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지하철역 노숙자들에게도, 동일하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도, 동성애자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돌을 들고 썩썩거리는 사람도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은 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소비하기만 하는 분들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무게만큼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여러 기쁜 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의 무게를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구원이 아무런 대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마저 사라져서는 곤란하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²⁷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²⁸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²⁹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³⁰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1:27-30).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오직 은혜로 대가없이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구원의 감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